

**15.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 곧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더라**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

최봉우 목사



노란 숲 속에  
두 갈래로 난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 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수학공식처럼 집어넣기만 하면  
그 답이 나오는  
기계적인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가?

시 48: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도다”

# 1. 하나님의 인도는 한 번에 한 단계씩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열 발걸음 앞서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발을 앞서  
보여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님은 주로 한 번에 한 단계씩  
인도하십니다. 한 단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단계 이끄십니다.  
그렇게 열 단계를 간 후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여기 가지 왔는지  
감사하게 된다.



## 2.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 3. 하나님의 인도는 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방법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다양하다.  
때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통해, 때로는 내면의  
깊은 평안함을 느끼도록  
하시기도 한다.

때로는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하시고  
침묵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신다.



**4.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어느 일자리를 선택하고,  
어느 학교에 가고,  
누구와 결혼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9:23 “곧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